

제 10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14,53-15,47)

최고 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마태 26,57-66) ; (루카 22,54) ; (루카 22,66-71) ; (요한 18,12-14) ; (요한 18,19-24)

53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 왔다.

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고 있었다.

55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56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57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58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울 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59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60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리오?" 하고 물었다.

61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62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63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64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예수님을 조롱하다 (마태 26,67-68) ; (루카 22,63-65)

65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놀려 대기 시작하였다.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마태 26,69-75) ; (루카 22,55-62) ; (요한 18,15-18) ; (요한 18,25-27)

66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67 불을 쪼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68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바깥뜰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69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70 그러나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71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72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마르코 복음 15장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마태 27,1-2) ; (마태 27,11-14) ; (루카 23,1-5) ; (요한 18,28-38)

- 1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 2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묻자, 그분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 3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 4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 5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마태 27,15-26) ; (루카 23,13-25) ; (요한 18,38-19,16)

- 6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곤 하였다.
- 7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 8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 오던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 10 그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 11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 12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 13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거듭 소리 질렀다.
- 14 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 15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다 (마태 27,27-31) ; (요한 19,2-3)

- 16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 17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얹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 18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 19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 20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태 27,32-44) ; (루카 23,26-43) ; (요한 19,16-27)

- 21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 22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 터’라는 뜻이다.
- 23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 24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 25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 26 그분의 죄명 패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 27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28) 그리하여 '그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29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더니.
 30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31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32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숨을 거두시다 (마태 27,45-56) ; (루카 23,44-49) ; (요한 19,28-30)

33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35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36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37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38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39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40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41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종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묻히시다 (마태 27,57-61) ; (루카 23,50-56) ; (요한 19,38-42)

42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43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44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45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46 요셉은 아마포를 사 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 막아 놓았다.
 47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말씀 새기기

1. 체포된 예수님께서서는 대사제로부터 무슨 질문을 받으셨으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4,53-64) 또 빌라도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15,1-5)

2.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숨을 거두셨으며, 무엇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15,21-28, 33-34)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15,34)라는 부르짖음의 의

미는 무엇일지 나누어 봅시다. (참조 시편 22,1-32)

3.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그분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백부장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5,29-32, 35-41)

4. 누가, 언제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하였습니까? (15,42-47)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참조 마태 27,57-61); 루카 23,50-66, 요한 19,38-42)

말씀 살기

1. 키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까? (15,21)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게 되는 십자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해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나누어 봅시다.

2. 예수님을 배신하는 두 제자 유다 (14,10-11, 43-47; 참조 마태오 27,3-10) 와 베드로(14,27-31, 66-72)의 모습을 찾아 봅시다.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을 적어 보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